

독서 활동지
나 줘! 나 줘!



“난 작고 약하니까 버스도 먼저 탈 거고,
간식도 친구들보다 많이 먹고, 놀 때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!”
가족, 친구, 이웃 모두가 베푼 배려가
점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아기 오리 콩알이.
점점 자라 수박만큼 커지게 되어도,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?

소하연 글 | 김민우 그림

교과연계

초등 2학년 1학기 통합 1. 나
초등 2학년 2학기 국어 2. 서로 존중해요

주제어

떼쟁이, 배려, 사회성, 순환, 성장, 처음, 친구관계, 철부지, 도움

[책 읽기 전에 생각해요]

1. 『나 줘! 나 줘!』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니다.

1) 앞표지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봤을 때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일 것 같나요?

→

2) 제목을 보면, 어떤 생각이 드나요?

→

3) 이 책은 어떤 책일 것 같나요? 책 뒤표지를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.

→

2. 아직 어리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은 적이 있나요? 아니면 반대로,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? 어떤 도움이었나요?

3.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인가요? 어떻게 행동하나요?

[책 읽고 내용을 확인해요]

1. 아직 작고 연약했던 콩알이가 모두에게 받은 도움이나 배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?

()

- ㉠ 너구리 아저씨 - 산딸기를 막 따먹어도 혼내지 않았어요.
- ㉡ 토끼 아줌마 - 버스 정류장의 줄을 양보해 주었어요.
- ㉢ 다람쥐 다로 - 자기 몫의 간식까지 나눠 줬어요.
- ㉣ 강아지 루리 - 소중한 목걸이를 빌려주었어요.

2. 콩알이는 왜 집을 뛰쳐나왔나요? ()

- ㉠ 까까 형이 아픈 게 마음이 아파서.
- ㉡ 친구들도 가족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속상해서.
- ㉢ 쏟아지는 비를 맞고 싶어서.
- ㉣ 감자튀김이 먹고 싶으니 사오기 위해서.

3. 콩알이가 처음으로 남을 도와준 건 어떤 일이었나요?

()

4. 콩알이는 다른 동물을 도와주려다가 실패했어요. 도와주려던 동물과 실패한 이유가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보세요. ()

- ㉠ 너구리 아저씨 - 산딸기를 너무 강하게 쥐어서 터뜨려 버렸어요.
- ㉡ 강아지 루리 - 목걸이 줄이 끊어지고 펜던트가 다른 곳으로 날아갔어요.
- ㉢ 토끼 아줌마 - 버스 줄을 양보하려다가 발을 밟아 버렸어요.
- ㉣ 까까 형 - 물수건을 얹어 주려다가 물을 뿌려 버렸어요.

5. 콩알이가 다른 동물을 도와주기 위해 쓴 '잘하는 것'은 무엇이었나요?

()

[책 읽고 생각해요]

1. 콩알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? 어떤 경험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.

2.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, 이 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고 적어 봅시다.

3. 이야기가 시작할 때의 콩알이와, 이야기가 끝나갈 때의 콩알이는 많이 달라졌어요. 달라진 콩알이를 응원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.

[책 읽고 내용을 확인해요] - 정답

1.

㉞ 강아지 루리 - 소중한 목걸이를 빌려주었어요.

2.

㉠ 친구들도 가족들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속상해서.

3.

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거북이 할아버지가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 주었어요.

4.

㉠ 토끼 아줌마 - 버스 줄을 양보하려다가 발을 밟아 버렸어요.

5.

커다란 목소리 / 우렁찬 목소리 등